



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김완주 | 전라북도지사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서론

물은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다. 더욱이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물의 활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 세계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계절별·지역별 편중이 심하여 안정적 수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의 영향으로 남북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강수특성은 최저 698mm('88)에서 최고 1,936mm('03)까지로 비교적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11)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전라북도 강수총량은 102.9억^{m³}인데 증발산 및 차단 등으로 인한 자연적 손실량 41.8억^{m³}을 제외한 61.1억^{m³} 대부분이 472개소 3,258km¹⁾의 하천을 통하여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특성 및 수자원·하천 현황

전라북도의 기후 특성은 동고서저형의 지형적 특성과 서

1) 국가하천 11개 하천 352km(11%), 지방하천 461개소 2,906km(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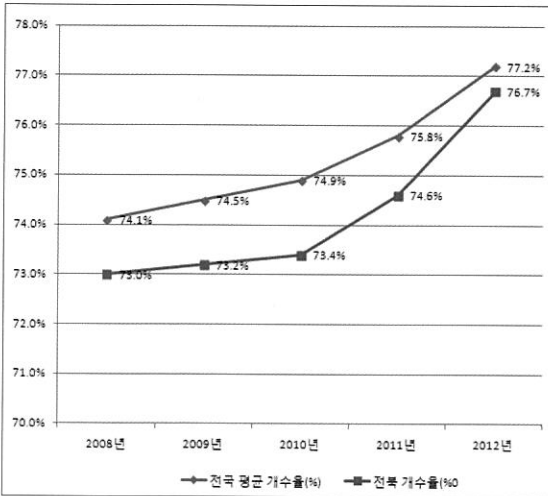
전라북도 수계별 수자원 부존량

유역	유역면적(km ²)	연평균 강수량(mm)	강수총량(백만m ³)	연평균유출량(백만m ³)			손실량(백만m ³)
				홍수기	비홍수기	계	
전라북도	7,942.9	1,295.4	10,289	4,397 (42.7%)	1,715 (16.7%)	6,112 (59.4%)	4,177 (40.6%)
만경강	1,592.6	1,271.8	2,025	816 (40.3%)	357 (17.6%)	1,173 (57.9%)	853 (42.1%)
동진강	1,155.8	1,227.4	1,419	543 (38.3%)	266 (18.7%)	809 (57.0%)	610 (43.0%)
섬진강	2,135.9	1,357.0	2,898	1,288 (44.4%)	466 (16.1%)	1,753 (60.5%)	1,145 (39.5%)
금 강	1,839.7	1,251.4	2,302	1,010 (43.9%)	355 (15.4%)	1,365 (59.3%)	937 (40.7%)
낙동강	243.6	1,492.6	364	172 (47.2%)	49 (13.4%)	220 (60.6%)	143 (39.4%)
기타수계	975.3	1,313.2	1,281	569 (44.4%)	223 (17.4%)	792 (61.8%)	489 (38.2%)

[주] 전라북도의 유역면적은 섬을 제외(109.8km²)한 내륙면적만을 의미함.

전라북도의 하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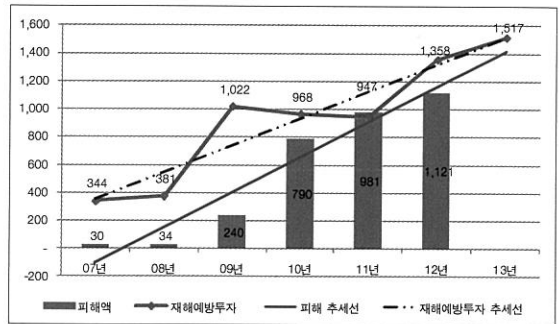
우리 도에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12년 기준으로 지방하천 개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76.7%로 여전히 홍수에 취약한 상태이다.



최근 전북도의 지방하천 개수율

따라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매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11년 태풍 무이파, '12년 군산 집중 호우 시에는 약 500년 빈도의 극한강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여 단순히 피해

후 복구사업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하천사업과 더불어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전북도의 풍수해 피해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 내역

하천정비 실태 및 이후 방향

현재까지의 하천정비 실태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은 이·치수를 위한 제방축제 및 하도 확장 등 홍수방어형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자재도 식생물이나 생태복원효과 등의 고려 없이 지나치게 안전성 위주로 선정하여 환경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수목·초화류 등의 식재시 지역 및 주변환경 여건 고려가 미흡하였고, 동·식물, 조류, 어류 등의 서식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생태환경 단절이 나타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는 획일화된 정비사업으로 하천 고유의 개성

이 없는 인위적인 하천을 조성해 왔다.

앞으로의 정비 방향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각 하천에 대하여 보전지구, 친수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하천의 특성에 맞는 정비유형과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하천의 생태적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시행시 인위적인 하도정비 사업 대신 과거 하도이력을 찾아 하도형상 및 식생·서식 공간 등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

변 토지를 매입하여 홍수터 및 생태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자연과 조화되는 자재나 자연소재 공법(어린나무, 나무말뚝, 황토 등)을 반영하고 하천환경 및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변·수생식물, 수질정화 식물 등은 생육이 왕성한 외래품종보다는 재래 고품종 식재를 반영하여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물웅덩이, 돌무덤 등을 계획하여 수초 및 물고기 서식처를 제공하고 자연소재를 활용한 전면경사형 어도 도입 등으로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하천생태를 조성하고자 노력



삼천 천수공간



삼천 둔치내 초화류 식재 및 천수공간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쉼터



전주천 돌담길과 자연형 둔치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역사·사회성을 발굴·반영하여 추억과 정감이 있는 생명력 있는 하천을 조성하고 하천 고유의 개성을 존중하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4대강 중 금강과 섬진강이 발원하여 서해와 남해로 흐르고 있어 물과는 인연이 아주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한 물이 흐르는 동맥인 하천을 잘 정비하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치수의 안전과 더불어 자연의 섭리에 충실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고 있으며 부족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계사년 새해 아침에 다짐해 본다. 🌍